

호남민심 결집이나 분산이나...박빙 대선 핵심변수 부상

이재명 몰아주면 정권 재창출
윤석열 나눠주면 정권교체
여야 안갯속 민심잡기 혼신
호남정치권 막판 역할도 주목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윤 후보 측에서는 호남 민심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막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남 정치권 역할론=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호남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결집을 이끌어 정권재창출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호남 정치권은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 민심을 자켓대 삼아 늘 대선의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 존재감을 찾아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호남 국회의원 대부분이 초·재선인데다 당은 물론이고 선대위에서도 변방으로 밀리면서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한 국회의원들도 상당수여서 이재명 후보 캠프와의 화학적 결합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동권과 관료 그룹 등 호남권 국회의원들 간의 불신과 반목도 자체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은 대선을 빌미로 자신의 지방선거 조직 배가 운동에도 나서고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무기력은 호남에서 '이재명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호남 정치권 스스로가 대선을 앞두고 현신과 결집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호남 정치권이 호남 민심 결집에 별다른 동력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호남 정치권은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바닥을 돌며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남 정치권의 막판 호소에 호남 민심이 제대로 결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때늦은 호들갑이라는 눈총도 있다.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은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 결집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에서 변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현신으로 정권재창출의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설훈 세대통합상생위원회 상임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대통합상생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0% 압도” vs “30% 이변”

민주 전통적 지지층 결집 사활
국민의힘 젊은층 공략에 승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과 국민의힘이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양 당 모두 호남에서 의미있는 득표율을 올려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호남 민심이 과거 대선 항배를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양당은 22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집중 유세 등 각종 선거 전략을 통해 아직 후보 결정을 하지 못한 '부동층'까지 끌어당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이 '뒷발'이라는 점에서 85~90% 이상의 득표율을, 국민의힘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점에 고무돼 20~30%까지의 지지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송갑석 위원장은 14일 광주 대선 득표율 목표치가 85%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총괄선대위원장)의 본격 등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으로 인한 진문 결집, 전통적 지지기반 결집 등을 근거로 이 같은 목표 득표율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호남에서 20대 남성(이대남)과

친문(친문재인) 등의 지지세가 예전 같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 일하는 민주당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기존의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발품을 파는 선거 운동까지 시작할 것이다"면서 "각 지역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호남 표심 바닥까지 긁어모으겠다는 심정으로 뛰어 다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시당이 청년 선대위를 발족하는 등 혁신이 나섰지만, 아직 20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 효과가 덜 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공세적이고 활발하게 2030세대를 겨냥한 맨투맨 방식의 선거운동도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남 선대위원장인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에서의 투표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이 가운데 90% 득표율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앞서 지난 1월 추진하기로 한 '지방선거 이후 보자 대선 투표소 책임제'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박빙 구도 속 치러지는 대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당이 추진하는 투표소 책임제는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등 자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선거구별로 투표소를 1~3개씩 실명으로 할당해 투표소별 투표율을 대선 뒤 진행되는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에서 호남 득표율 두 자릿수를 달성해 호남에서 대선 승리를 견인하

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송기석 위원장은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과거의 선거운동에서 젊음과 감동으로 광주를 변화시켰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호남 득표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광주 선대위도 25%를 넘어 30% 득표율 목표를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와는 다른 표심을 보이는 2030 청년 세대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그동안 국민의힘의 불모지였던 호남에서 '꿈의 득표율'을 달성해보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는 대학생 청년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유세를 준비해 젊은층 결집에 승부를 건다. 또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키보드 유세단, 킥석열'을 출범시켜 전통키보드를 타고 다니며 대학가와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등 광주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이번 대선에서 역대 대선 전남 최대 득표율인 10.0% (18대 대선)의 갑절인 20%를 목표 득표율로 잡고 총력 유세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20~30 세대를 주요 타깃 층으로 설정하며 표심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선거운동 전날인 이날까지 전남 22개 시군에 23개 선거연락사무소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16대의 유세차를 곳곳에 배치하고, 297개 읍면동에 선거운동원 신고를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윤석열 43.5%·이재명 40.4%...격차 줄어

KSOI 조사...안 7.8%·심 3.5%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3.5%, 이 후보는 40.4%를 각각 기록했다. 후보 간 격차는 3.1%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다. 6.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2월 4~5일) 때보다 줄었다. 이 후보는 2% 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1.1% 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일 윤 후보의 '집권시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 다음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표출 및 사과 요구, 11일 밤 2차 TV토론이 연이어 진행된 가운데 실시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7.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6%포인트 상승한 3.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지지율은 1.2%로 나타났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0.6%를 기록했다.

KSOI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